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⑫

규원사화

□ 一沙權正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洪範八政, 三曰祀, 祀者, 所以通神明而報其本也. 是以, 陸有祭獸之豕, 水有祭魚之鱸. 夫豕獮者, 禽獸也, 猶知報本之意, 人而不知(其)報本之禮乎! 又神市, 肇宅人界, 其降自天; 桓儉繼志述事, 未嘗少弛, 此桓儉所以, 定厥鼎而便祭上天也. 且太白山者, 神市降降之靈地也; 檀君踐(祚) [], 亦肇于厥地, 此又始行之, 于太白也. 是爲東方萬世之國典, 故古代國君, 必先敬事上帝(一)大主神[也]及檀君三神, 因以爲道.

홍범팔정(洪範八政)의 세번째는 ‘사(祀)’를 말하고 있는데, ‘사’란 신명(神明)과 통합으로써 그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육지에는 제사를 지내는 짐승인 송냥이가 있고 물에는 제사를 지내는 고기인 수달이 있으니, 대저 송냥이며 수달은 짐승이면서도 오히려 근본에 보답하는 의미를 아는데 한차 사립이면서 근본에 보답하는 예절을 알지 못하였는가! 또한 신시씨가 인간세계에 처음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환검은 그 뜻을 이어 이를 처리함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으니, 그러한 까닭에 환검이 비로소 숲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지내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태백산은 신시씨가 하늘을 오르내리던 신령스러운 땅이며 단군의 등극 역시 그 땅에서 비롯하였으니, 이로써 그 제사를 태백에서 처음으로 행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동방에 있어 만세에 걸친 나라의 제전이 되었으니, 고대의 나라 임금은 반드시 먼저 상제(上帝)(즉 한 분의 큰 주신이다)로부터 단군에 이르기까지 삼신(三神)을 삼가 섬기는 것을 도리로 삼았다.

至於官職, 又有(太)大仙國仙衣之稱, 至若東明聖王, 有朝天之石, 明臨夫, 曾帶衣之職. 蓋蘇文, 入鳳凰山, 修鍊十年, []遂爲萬古奇傑; 金庚信, 亦入中嶽石窟, 十年修道, 終爲名將, 助太宗致盛強. 渤海時有報本壇, 高麗時有聖帝祠, 遼有木葉山三神廟, 金有開天弘聖帝之廟. 我世宗, 設檀君廟於平壤, 世祖元年, 改位版圖(朝鮮始祖檀君之廟). 蓋神氏之事, 聽者多疑其迂怪. 至今惟知崇檀君, 而不知其前實有神氏之

開創矣. 世俗不知原由, 只憑漢籍曰: [仙教是黃老餘流.] 殊不知, 以神設教, 實自我神市之世也.

관직에 있어서는 또한 대신(大仙)·국신(國仙)·조의(衣) 등의 명칭이 있었으며, 동명성왕에 이르러서는 조천석(朝天石)이 있었고, 명림답부(明臨答夫)는 일찍이 조의(衣)의 직책을 맡았었다. 연개소문은 봉황산에 들어가 십년을 수련한 뒤 마침내 만고에 뛰어난 호검이 되었으며, 김유신은 중악의 바윗굴에 들어가 십년을 수도한 뒤 결국에는 명장이 되어 태종을 도와 나라를 강성함에 이르게 하였다. 발해 때는 보본단(報本壇)이 있었고, 고려 때는 성제사(聖帝祠)가 있었으며, 요나라에는 목업산(木葉山)의 삼신묘(三神廟)가 있었고, 금나라에는 개천홍성제(開天弘聖帝)의 사당이 있었다.

우리 세종께서는 단군묘(檀君廟)를 평양에 설치하였는데 세조 원년에 위패를 고쳐 ‘조선시조단군지묘(朝鮮始祖檀君之廟)’라 하였다. 대저 신시씨의 일을 들은 사람은 현실에 맞지 않고 괴이함을 의심을 많이 한다. 지금은 오직 단군만을 숭상할 줄 알 뿐, 그 앞에 신시씨가 세상을 열어 창조하였음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세속은 그 연유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단지 한나라의 서적에 의지하여 이르기를 [선교(仙敎)는 황노(黃老)의 한 부류이다]라고 하니, 신인으로서 가르침을 베푼 것이 우리 신시씨의 세상에서부터 비롯하였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한다.

檀君既祭天而立教率民, 而政道化行數年, 率土之民, 皆洽其化, 陶鈞壽無, 無爲而治. 此檀君神德之所致也, 乃立國之本也. 後可繼述焉.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가르침을 세워 백성을 통솔하며 도를 궁구하여 교화를 행한 지 수천만에 강도의 백성에게 모두 교화가 두루 미치지, 세상이 잘 다스러지고 모든 악독함이 사라지는 등 행함이 없어도 잘 다스려졌으며, 이는 단군의 신령스러운 덕의 소치로서 곧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후에 계속하여 말하고자 한다.

居牛首河畔十年, 乃遷都於白山之南



溟水之北, 曰平壤, 卽第二(王) [王]儉城也. 蓋今凍沫之地, 風氣凄冷, 土味勁寒, 雖野勢通豁, 而耕農之利不如南土. 且凍沫之水, 北流入混同江, 南地交通, 自多不便, 此必其由也. 淸平云: [檀氏之世, 四遷其鼎, 第二奠都於溟水之北, 卽渤海西京. 鴨州地, 神州是也. 高句麗國內 桓都古城之址, 在其境內焉.] 則溟水之非獨爲今之大同江, 明矣.

우수하(牛首河)의 물가에 거처한 지 10년만에 백산(白山)의 남쪽 패수(溟水)의 북쪽으로 도움을 옮기고 평양이라 하니 곧 두번째의 임금성이다. 대저 속밭의 땅은 바람 기운에 냉기가 돌고 토양이 척박하여 비록 들판의 기세는 광활하게 트였으나 농사를 짓는 이로운 남쪽 땅만 못하였다. 게다가 속밭의 물은 북으로 흘러 혼동강(混同江)으로 들어가기에 남쪽으로의 교통에는 자연히 많은 불편이 있었으니, 이것이 반드시 그 이유일 것이다. 정평이 말하기를 [단제(檀氏)의 치세 때 모두 네차례 숲을 옮겼는데, 그 두번째는 패수의 북쪽에 도움을 정하였으니 발해의 서경 압록부 땅인 신주(神州)가 바로 그 곳이다. 고구려의 국내성 및 환도성(桓都城)의 옛 성터가 그 경내에 있다고 하였으니, 패수가 지금의 대동강이 아님을 분명하다.

按《新唐書·渤海傳》曰: [高麗(古)故]地爲西京, 曰鴨(綠) [] 府, 鎮神豐桓正四州。《遼史·地理志》曰: [州, 鴨軍, 節度, 本高麗(古)故]國, 渤海號西京. 鴨州, 都督神桓豐正四州事. 故縣三, 神鹿 神化劍門, 皆廢.] 又曰: [桓州, 高麗. 中都城, 古縣三, 桓都 神鄉 溟水, 皆廢.] 夫渤海承高句麗(之)後統, 高句麗復出於夫餘, 則渤海之世, 猶有古史之傳者, 想不少矣. 或曰: [平壤之敗李勣, 盡燒宮室車藏, 復虜其公侯世族, 則史籍亦不免灰燼矣. 渤海, 安得傳其史乎? 余以(謂)爲]不然. 渤海. 高王, 乃高句麗舊將也.

〈다음호에 계속〉

황제가 되기에 급급한 환현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교전연구소 소장)



동진시대에 환현(桓玄)은 양자강 유역의 안휘성에서 그 아버지 환운(桓溫) 대로부터 큰 세력을 가진 집안에서 출생하여 권력이 있는 자리로 진출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드디어 근 당시의 혼란한 상황에서 무력을 가지고 집안하면서 대장군이 되어 동진에서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진(晉)으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새 왕조를 세우라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알아차린 힘없는 황제인 사마덕종(司馬德宗)은 하는 수 없이 환현을 상국(相國)으로 삼아서 모든 관리를 다 관리하게 하고, 10개의 군(郡)을 그에게 봉지(封地)로 주고 또 초왕(楚王)으로 삼았다.

그런 만이 아니었다.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아홉 가지 물건인 구석(九劔)을

사용하도록 했고, 환현의 봉국인 초에는 별도로 승상 이하의 관리를 두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역사에서 왕조가 바뀔 때에 나타나는 조치이다. 결국 이러한 조치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황제 자리까지 양보하게 된다. 이를 보통 선양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즉 황제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듯이 훌륭한 인물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사실 말이야 훌륭한 인물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력으로 빼앗은 것이다. 다만 형식만 그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환현의 사람됨은 황제를 맡기에는 너무도 가식적(假飾的)인 인물이었다. 그것이 나타난 첫째 일로는 환현

은 이치상 자기의 봉국으로 돌아가 했기에 황제에게 반국인 초로 돌아가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가기 싫어서 뒤로 가서 황제에게 손수 조서를 써서 만류하여 달라고 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는 자기 봉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니 제후로써의 도리를 다하였지만 황제가 만류하여 가지 않는다고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자기가 정권을 잡았으니 이러한 때에 숨은 인재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였다. 숨은 인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



서울산악회 산행 안내 (제225차)

- 일 시 : 2013년 7월 21일 오전 10시(매월 셋째주 일요일)
- 집결장소 : 2호선 서울대입구역, 서울대 만남의 광장 앞
- 등 산 지 : 관악산
- ▲ 회장(권영석) : 011-207-6549, 02)453-6549 ▲ 사무국장(경택) : 010-3796-4047, 02)963-5222
- ▲ 등반대장(오준) : 011-718-4204, (오익) : 011-205-6134
- ※ 준비물 : 간식, 물, 산행 필수장비, 물컵
- ※ 산행시 개인행동을 삼가시고 단체 행동을 해주십시오.
- ※ 개인 행동시 안전사고가 날수 있으며 사고시 각자 책임입니다.

※ 서울산악회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ankwonmm>입니다.

2013년 7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영석

동락전투

6·25전쟁 최초 전승지 답사기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지 63주년이 된다. 해마다 60대 이후는 6·25를 모르고 40대 이후는 소수가 6·25를 북침이라 한다. 반공의식이 해이된 오늘날 북한의 아욕을 상기하며 필자는 6월을 맞아 한국군의 최초 전승지(戰勝地)였던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30에 위치한 동락초등학교의 ‘동락전투(東樂戰鬪)’ 현장을 답사했다.



△동락전투 기념관과 전승비(충주시 신니면)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은 T34 중전차 약 300대를 선두로 8개 여단 병력으로 포천-의정부를 주공으로, 개성-문산과 춘천을 조공으로 불법 기습 공격을 하였다. 불의의 남침 기습을 당한 우리 국군은 개전 초 4만1천여 명의 병력과 경장비로 결사적 방어를 하였으나 패전을 거듭하여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다.

수도서울을 빼앗기고 한강방어선이 무너지자 7월초에 경기 평택-강원 충주지역을 연결하는 방어선이 형성되었다. 개전 초 춘천지역에서 성공적인 방어임무 수행하던 국군 6사단은 충주까지 후퇴하여 7월 4·5일 음성북쪽 소여리와 용산리 일대에서 방어망을 구축하고 매복 작전에 돌입했다.

7월6일 북한군 15사단 소속 48연대 병력이 동락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여 휴식을 하였다. 이때 부임 1개월 된 19세의 김재옥 여교사가 북한군에게 국군이 남쪽으로 도망가고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정보를 주고 학교 뒷문을 통해 서남쪽 약 4km떨어진 부용산(644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던 국군에게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다. 국군 6사단에는 7연대 2대대가 작전계획을 세워 오후 5시를 기해 기습공격 하여 북괴군 1개 연대를 완전섬멸하게 되었다. 7월7일 작전종료 후 전과는 사상 2,186명, 생포 186명, 노획품으로 12리터 곡사포 6문, 76·30리 8문, 경기관총 41정, 소화기 2천여 정, 장갑차 10대, 사이드카 20대, 잠차 20대, 2.5톤 40대, 다량의 통신장비와 탄약, 식량 보급품이었다.

동락전투는 국군 제 6사단(사단장: 김종오 소장) 7연대(연대장 민기식 대령)에하 2대대(대대장 임부택 중령)가 전쟁발발 후 최초로 북괴군 1개 연대 병력을 무참히 괴멸시킨 최대 승전을 기록한 곳이다. 당시 아군은 대대병력 400명에 중화기 80미터 박격포 1문과 기관총 1정이었으나, 적 1개연대병력을 괴멸시키고 북한군의 음성진출을 1주간 지연시켜 국군의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버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노획한 장비를 대전에 전시하고, 각 품목 1점씩을 유엔에 보내 소련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이로서 소련군의 지원개입 사실이 인정되어 유엔군이 참전된 후 처음으로 한국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전하여 많은 유엔군이 희생되기도 했다.

동락리 전투 직후 이승만대통령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7연대 전원을 1계급 특진시켰다. 그리고 이 전투를 기념하고 김재옥 교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전쟁과 여교사’란 영화도 만들어졌으며, 정부는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1990년 7월7일 동락초등학교에 김재옥 기념관을 건립하여 매년 관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을 세워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1일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기념관은 부지 4천 평방미터, 연건평 400 평방미터에 항일투쟁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전쟁과 김재옥 교사소개, 동락전투 현황과 김 교사 활약상, 동락리 전투 모형, 북한실태와 북한 대남전략, 우리통일정책 등 6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에 등록하여 김재옥 교사 기념관을 소개하고 기념관 전시실에 설치된 6·25 전쟁 개요와 각종 장비, 동락전투와 전승, 김재옥 교사의 공훈, 북한의 정치와 사회, 통일로 가는 길 등을 견학하고 태극기 그리기, 군가배우고 부르기, 추모 시 짓기, 국난극복 인물퀴즈 소감문 발표를 하고 학교 정문과 건너편 산 입구에 세워진 헌종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재옥 교사는 1931년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에서 출생하여, 1950년 5월 20일 충주사범학교 1회로 졸업하고, 6월20일 동락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1950년 7월 7일 국군을 도와 큰 공을 세우고, 50년 10월 20일 이덕주(병기장교)와 결혼하여 1952년 9월 30일 퇴직하였다. 남편을 따라 전방 생활을 하다가 1963년 10월19일 사망하였다.

이번 동락리 전적지 답사는 오랫동안 전사(戰死)를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큰 보람이었다. 그리고 6·25 전쟁 초기에 우리국군의 어려움과 활약상, 패전 속에서도 건재를 유지하고 반격정신을 잃지 않고 대승한 지휘관들의 기개(氣概), 김재옥 교사의 애국심 등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동락리 전투의 전승에 다시한번 감격하며 앞으로 6·25 전쟁 최초 전승지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개입과 지원 발상지로 부각되길 기대해 본다. (樵雲 권해조)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재단회비 △권혁용(부총재) 100만원 ■ 참조 △권영선(부총재) 100만원 <p style="text-align: right;">소 계 2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회비 △권유수(금천) 10만원 △권혁인(대구) 10만원 △권태복(금천) 10만원 <p style="text-align: right;">소 계 30만원</p>	
계 230만원	



바로잡습니다

본지(2013.6.1. 456호 3면) 「정현공묘 역사초고유」 기사 중 △정현공(아현관)熙貞씨를 熙貞시로, 종현관 赫升씨를 赫昇씨로, △필직공(아현관)秉善씨를 炳善씨로 각 바로잡습니다.

서울 청·장년회 7월 월례회 안내

서울 청·장년회 7월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7월 4일 (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영터리생고기 강남역점 (☎02)582-9392 (서울 서초4동 1327번지)
- 오시는길 : 강남역 6번출구 돌아→돈킨도너츠골목200m→서초타워트라피리스→삼성전자 앞
- 회장 권혁창 : 02)3435-6565(사) 010-3680-5057
- 총무 권순용 : 02)581-1120(사) 010-4911-9435
- e-mail:kojo571@hanmail.net / 인터넷:www.andongkwon.net

2013년 7월 1일

서울 청·장년회 회장 권혁창